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2월, 벨기에)**

2018.0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2월 _주 벨기에 한국문화원 [배가브리엘]**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 안은미 컴퍼니 참여	3
2			제37회 아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 폐막작 선정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공간	Les Ateliers Claus/ 아틀리에 클로스	5
4			Le 140	5
5			La Raffinerie / 하피너리	6
6	토리	축제 및 행사	Pays de Danses / 페이드당스	8
7			Brussels Dance! / 브리셀 댄스	9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전시/축제	장르	무용/공연예술
관련링크	http://holland-dance.com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에 안은미 컴퍼니 참여

네덜란드 댄스 페스티벌, 또는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Holland Dance Festival)이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된다. 네덜란드왕실 등의 후원을 받는 축제로, 안무가 지리 칼리안과 NDT, 네덜란드 왕립 콘서바토아 등으로 이름이 높은 네덜란드 현대무용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

네덜란드 국내외 안무가와 무용단체의 작품 약 40~50개를 선정해 상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워크샵과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8년에는 무용수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아이스 스케이팅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 “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축제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19개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헤이그(Haag)의 코르조 극장을 중심으로 델프트,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지역의 극장에서 여러 작품을 상연한다. 네덜란드의 NDT와 미국의 마사 그레이엄 댄스 컴퍼니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안은미 컴퍼니가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Dancing Grandmothers)>로 초청공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은미 컴퍼니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 갈라쇼에도 참여하면서 현지 관계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는 민속음악과 전자음악, 화려한 무대장치를 활용하는 가운데 전문 무용수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용단원들과 함께 공연하는 작품이다. 안은미 컴퍼니의 세대 3부작(<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사심없는 댄스>, <아저씨를 위한 무책임한 댄스>) 중 하나로서, 몸의 노화에 대처하는 법을 성찰하는 작품으로 네덜란드 관객을 만난다.

이외에도 한국계 입양인 안무가로서 벨기에 및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민희 베르보츠 역시 축제에 참여한다.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은 이미 1987년에 호세 리몬, 오하드 나하린, 피나 바우쉬, 윌리엄 포사이드 등이 참여한 바 있는 유서 깊은 축제로서, 축제기간 전후로도 주최기관 ‘홀랜드댄스’는 프로그래밍과 제작, 상연을 계속한다. 2018년 축제가 끝나는 대로 3월에는 벨기에의 대표 안무가 중 하나인 시디 라비 체르카위의 작품을 헤이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 포스터)

1. 현지 동향 <2>			
유형	전시/축제	장르	영화/시각예술
관련링크	http://www.animafestival.be/		

세계37회 애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 폐막작 선정

벨기에 브뤼셀에서 매년 개최되는 애니마(ANIMA)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가 올해로 제37회를 맞았다. 애니마 영화제는 토티, 스머프 등 유명한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만화강국”으로 불리는 벨기에의 주요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프랑스),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크로아티아), 오타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10대 애니메이션영화제로도 꼽힌 바 있다.

애니마 영화제는 다양한 국내외 작품 약 300여편을 상영하며, 전적으로 애니메이션 작품만을 상영하는 가운데 관련 전시와 콘서트, 마스터클래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용 섹션도 별도로 운영한다. 올해에는 아카데미 최우수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소재로 삼은 <반 고흐: 위대한 열정((La Passion Van Gogh),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더 브래드위너(The Breadwinner)> 등도 출품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을 맡은 사회고발적 애니메이션 <더 브래드위너>는 2월 9일 애니마영화제의 포문을 연다. 신데렐라를 재해석한 <신데렐라 더 캣>(이탈리아), 동명의 소설을 만화로 제작한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일본) 등이 장편 부문에서 경쟁하며, <밤의 이야기>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감독 미셸 오슬로도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로 참여한다.

한국 감독들도 애니마영화제에 계속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에는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와 장형윤 감독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가 출품되어 호평을 얻었다. 2017년에는 연상호 감독의 ‘서울역’이 장편 경쟁부문에 진출한 가운데 장나리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아버지의 방’이 학생부문 최우수 단편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제37회 영화제의 폐막작으로는 안재훈 감독의 ‘소나기’가 선정, 매진을 기록하였다. 특히 1월 중 브뤼셀의 보자르(Bozar)에서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을 개최, 마스터클래스 등이 매진을 기록한 데 뒤이어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과 평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애니마영화제는 1982년 시작된 이래 양질의 작품들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성인과 청소년, 아동 관객을 포괄하는 애니메이션영화제로 이름을 굳혀 왔다. 제37회 행사는 벨기에 이셀(Ixelle) 지구의 예술기관 ‘플라제(Flagey)’에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 문화예술 디렉토리

1.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공간명	Les Ateliers Claus / 아틀리에 클로스		
유형	콘서트홀	장르	음악/공연예술
운영주체	Les Ateliers Claus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2006년
기관현황	- 라이브음악홀 2개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용 스튜디오 운영		
홈페이지	www.lesateliersclaus.com		

아틀리에 클로스(Les Ateliers Claus)는 2006년 설립된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브뤼셀 생질 (Saintgilles)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클로스 가문이 과거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구입 후 공연장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 목적으로 개축하였고 현재 “아틀리에 클로스”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주로 뮤지션과 드라마투르기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레지던시에 입주, 활동하고 있다. 비상업적인 장르의 음악을 상연함으로써 음악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연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티켓 가격 역시 젊은 관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한다. 컨템포러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브뤼셀 로컬 및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을 선정 제공한다. 음악 외에도 실험적인 예술을 선호하여, 영화 상연이나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을 갖기도 한다 - 약 200명 정도의 관객을 위한 홀과 100명 정도 수용가능한 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홀에서는 주로 필름 상연, 세미나 진행, 음악 레코딩 등을 진행한다. 즉 아틀리에 클로스는 일종의 대안예술공간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며, 개방적인 관객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1-3 : 아틀리에 클로스 내/외관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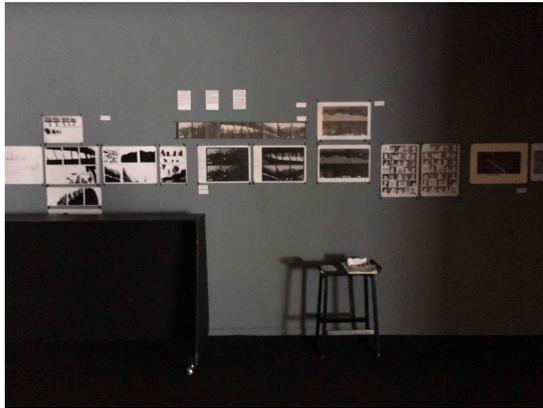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상연하는 이외에도, 아틀리에 클로스는 브뤼셀 곳곳의 다양한 기관 또는 공연장과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브뤼셀의 대규모 라이브홀 중 하나인 ‘앙시엔 벨지크(Ancienne Belgique)’, 현대무용전 문기관 ‘브리지틴스(Les Brigittines)’와는 상시 협력하여 음악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 글로벌 문화축제 ‘유로팔리아(Europalia)’와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유로팔리아 주빈국 아티스트로 초청받은 인도네시아 뮤직 듀오 세냐와(Senyawa) 등이 아틀리에 클로스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공간

공간명	Le 140		
유형	극장	장르	공연예술
운영주체	concertgebouw Brugge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63년
공간현황	약 500석 좌석 규모 공연장 및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한 홀 이외 기타 아티스트 작업공간 보유		
홈페이지	http://le140.be		

140(Le140)은 벨기에 브뤼셀 스텔베크(Schaarbeek)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오늘의 예술(Spectacles d’aujourd’hui ; Performances of these days)”을 지원하고자 1963년에 설립되었다. 특정한 장르에 치중하기보다는 “융합장르적(Inter-disciplinary)”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여, 음악과 무용, 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현대성과 실험성이 강한 작품을 선정해 상연하고 있다.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역시 자주 이루어지며, 약 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아티스트의 의도나 작품 분위기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규모를 100석 또는 300석 규모로 조정하여 공연을 제공하는 이외에도, 개방형 공간을 활용해 시각예술작품의 전시와 콘서트 상연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스텔베크 지역 주민을 위한 오픈형 콘서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진 1, 2 : Le140 내/외관)

* [tip] 역사가 오래된 공연장 중 하나로서 음악, 연극, 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아티스트들이 다녀갔다. 뮤지션으로는 세르주 갱스부르, 텔로니어스 몽크, 핑크 플로이드, 퀸, 아스트로 피아졸라, BB 킹 등이 140에서 공연한 바 있다. 벨기에의 대표적 현대무용가인 안네 테레사 드 키에르스마크와 빔 반데키부스를 포함해 독일의 피나 바우쉬, 프랑스의 마틸드 모니에도 다녀갔으며 일본의 부토 무용가인 오노 가즈오도 140에서 공연을 가졌다.

공간

공간명	La Raffinerie / 하피너리		
유형	극장/기관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Chareloi Danse (알로니-브뤼셀연합 안무센터)		
소재지	브뤼셀, 벨기에	설립년도	1979년
공간현황	대형 홀 1개 외 세미나/컨퍼런스/워크샵/리허설 진행가능 중소규모 공간 다수 보유		
홈페이지	http://charleroi-danse.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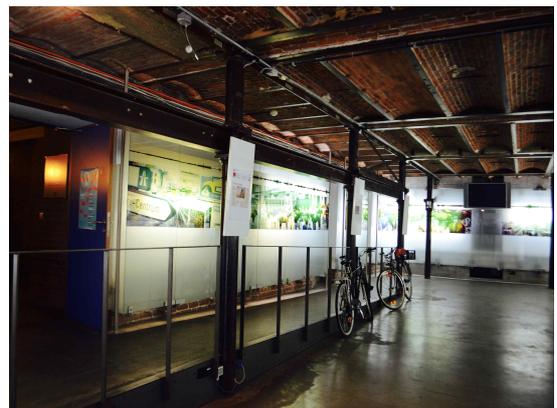
하피너리(La Raffinerie)는 브뤼셀 몰렌벵생장(St-Jan-Molenbeek) 지역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19세기에 세워진 설탕 정제공장을 개축한 공간이다. <Plan K>라는 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무용, 연극, 콘서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샤를루아 당스(Charleroi Danse), 즉 왈로니-브뤼셀연합 안무센터가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현재는 현대무용작품 및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더스트리얼 건축 양식의 건물로 트리뷴(Tribune) 객석을 갖춘 대형 홀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리허설 등 여러 규모 및 목적의 행사를 위한 중소규모 공간을 다수 갖추고 있으며 특히 현대무용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벨기에 로컬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두 선정, 제공하나 크리스티앙 리조, 모니아 몽탈리, 올리비아 그랜드빌 등 프랑스어권 아티스트 공연의 비중이 높다. 왈로니-브뤼셀연합, 브뤼셀 안무연합을 비롯해 브뤼셀의 여러 예술기관(현대무용기관 브리지틴스, 공연예술네트워크 IETM 등) 과도 파트너 관계에 있다. 특히 카이씨어터(KAAI Theatre)와 함께 브뤼셀 몰렌백생장 지역의 주요 현대예술기관 중 하나로, 과거 국립현대무용단과 작업하였던 아예린 파롤린(Ayelin Parolin) 등이 레지던시 아티스트로서 상주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 1 : La Raffinerie외관 / 2-4 : La Raffinerie 내부)



* [Tip] 샤를루아 당스(왈로니-브뤼셀 연합 안무센터)는 왈로니-브뤼셀연합 소속 예술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왈로니아 로열 발레단이 그 전신을 두고 있으며 컨템포러리 무용에 집중하기 위해 프레데릭 플라망드가 설립하였다. 2017년부터 프랑스 CDC 툴루즈 안무센터 출신의 아니 보치니(Annie Bozzini)가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무용 아티스트의 작품 제작과 상연, 리서치 및 트레이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샤를루아 당스는 브뤼셀의 하피너리 외에도 샤를루아 지역에 '에큐리(Les Ecuries)' 공간을 함께 운영 중이다. 전자는 주로 현대무용 상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후자는 아틀리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한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Pays de Danses / 페이드당스		
유형	축제/행사	장르	무용/공연예술
운영주체	Theatre de Liege (리에주 극장)		
개최시기	매 짝수년 2~3월	시작년도	2006년
개최도시	리에주, 벨기에		
참가규모	매년 약 7천명 이상이 20개 내외 공연을 관람		
홈페이지	http://theatredeleliege.be/evenement/festival-pays-de-danses/		

축제 및 행사

‘페이드당스’는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무용축제 중 하나로, 리에주 극장(Theatre de Liege)이 2006년부터 매 짝수 해마다 개최 중인 비엔날레이다. 매년 약 7천 명 이상의 관객들이 축제 기간 동안 공연을 관람하며,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주최기관인 리에주 극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예술기관들 협업해 축제를 개최한다.

약 한 달에 걸친 축제기간 동안 왈로니-브뤼셀 연합 지역에서 제작된 현대무용작품 십 수개에 더하여 해외 작품을 다수 초청한다. 해외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매 행사마다 특정 국가/지역에 중점을 두며, 2014년에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임지애, 안은미 안무가의 작품 등을 상연한 바 있다.

“모든 형태의 현대무용(Danse contemporaine sous toutes ses formes)”을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규모와 형태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2016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르헨티나의 솔로, 혼성 탱고 및 음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제7회 축제는 벨슨 만델라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로, 남아프리카 현대무용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 4개를 제시하며 축제 최초로 힙합 공연도 진행한다. 벨기에 로컬 안무가로는 안네 테레사 드 키에르스마커와 빔 반데키부스가 참여한다. 즉 페이드당스 축제는 “혼종(Metissage)”을 지향하는 현대무용축제로, 여러 형태 및 국적의 예술이 현대무용과 교배한 결과물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 : 리에주극장_페이드당스)

[TIP]

인구 약 20만명의 도시 리에주는 브뤼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남부 지역을 일컫는 왈로니(왈롱(Wallonie), 발로니엔 또는 발로니에) 지역의 중심지이며, 리에주 극장은 왈로니의 가장 중요한 극장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국립현대무용단과 협업하여 안무가 아예린 파롤린과 함께 <나티보스>를 제작, 상연하기도 했다.

리에주 극장은 과거 주한벨기에대사 피에르 클레망 뒤비송(Pierre Clement Dubuisson)의 주관으로 <병사 이야기>의 제작을 한국 최수양 작가 등과 함께 진행하고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이 작품을 초연한 바 있으며, 2014년의 <페이 드 당스>에서는 임지애, 안은미, 고블린파티, 김지옥 등을 초청하며 한국 예술계와 지속적으로 교류 중인 기관이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Brussels Dance! / 브뤼셀 댄스!		
	유형	축제/행사	장르	복합/공연예술
	운영주체	브뤼셀 시 (홍보, 언론 담당) 및 브뤼셀 소재 십수개 예술기관 협력 주최		
	개최시기	매년 2~3월	시작년도	2000년
	개최도시	벨기에, 브뤼셀		
	참가규모	십수개 예술기관 협력, 150개 이상 예술단체/아티스트 참여		
	홈페이지	http://www.brusselsdance.eu/		
	<p>브뤼셀 시와 왈로니브뤼셀연합이 지원하는 현대무용축제 <Brussels Dance!>는 브뤼셀의 다양한 극장과 무용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브뤼셀 관객들에게 현대무용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보다 다양한 현대무용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두달에 걸쳐 진행되며, 주로 프랑스어권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이 여러 장소에서 상연된다. 브뤼셀 시는 홍보와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뿐 프로그래밍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매년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이 총괄 운영을 맡아 전체 컨셉만 설정할 뿐, 각각 기관이 상연할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2018년 축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되며, 총괄은 브뤼셀의 현대무용기관 ‘브리지틴스’가 맡았다. 샤를루아당스, 카이씨어터, Le 140, KVS, 스타르베크 홀 등 평소에도 상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외에도 L’L, 개러지29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레지던시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진다.</p> <p>[TIP] 2018년 행사에는 카이씨어터, 샤를루아당스, KVS, 국립극장(Theatre Nationa) 등 대형 기관 외에도 발사민, 자크프랑크문화센터, L’L, 개러지29 등이 참여하여 총 13개 공간에서 총 50개의 공연과 워크샵, 강연 등이 100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랑스 안무가 크리스티앙 리조, 벨기에 무용단 담드픽, 일본 안무가 테시가와라 사부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p>			